

사회

# 서울대 문턱넘기 힘든 광주·전남

## 광주 출신 신입생 비중 3.6% 8위... 전남 2.3% 13위

### 이용섭 의원 “지역 균형선발 비중 확대해야”

올해 광주지역 고교 출신 서울대 신입생은 모두 120명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8위에 머물렀다. 전남지역 신입생은 75명으로 전국 13위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21일 배포한 ‘2012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신입생 3290명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이 각각 38%, 16.1%, 4%로 수도권 고교 출신의 비중이 58.1%(1779명)를 차지했다.

반면, 지방 고교 출신은 모두 1381명으로 전체 입학생의 41.9%에 그쳤다.

광주지역 고교출신 신입생은 3.6%(120명)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8

위, 전남은 2.3%(75명)로 13위였다. 부산이 5.8%(1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4.4%(144명), 대전 3.9%(128명), 경남 3.7%(123명) 순이었다.

전형 유형별로는 광주는 전체 120명 신입생 가운데 55명은 정시, 65명은 수시전형으로 합격했다. 전남은 18명이 정시, 57명이 수시전형 합격자였다.

서울대 입학생을 지역별 고교졸업자 수와 비교하면 서울은 졸업생 97명 중 1명꼴로 서울대에 입학했지만 전남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 318명당 1명꼴로 서울대에 들어갔다.

광주는 184명당 1명꼴로 서울대에 입학해 이 기준으로는 서울(97.6명), 대전(167명)에 이어 최상위권이었다.

서울대 입학생의 출신지역을 기초 단체별 세분화하면 상위권 10개 지역 중 광주·전남지역은 1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광주의 경우 북구지역이 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는 37명, 광산구 20명, 서구 9명, 동구 8명 등이다. 전남은 순천시 20명, 광양시 11명, 목포시 10명, 나주시·장성군 각 5명, 담양군 4명, 여수시·화순군 각 3명, 보성·영광군 2명, 곡성·구례·장흥·진도·함평군 각 1명 등이다.

이용섭 의원은 “수시전형에서 지역 균형 선발의 비중을 더욱 늘리고 이를 정시 모집으로도 확대해야 한다”며 “지역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시전형에서 지역균형선발 기조가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2012학년도 서울대 입학생 지역별 현황 (단위:명,%)

지역	정시		수시		전체	
	신입생	비중	신입생	비중	신입생	비중
서울	602	42.6	647	34.5	1249	38.0
경기도	281	19.9	249	13.3	530	16.1
부산	70	5.0	121	6.4	191	5.8
대구	67	4.7	77	4.1	144	4.4
인천	35	2.5	95	5.2	130	4.0
대전	54	3.8	74	3.9	128	3.9
경남	36	2.5	87	4.6	123	3.7
광주	55	3.9	65	3.5	120	3.6
충남	45	3.2	69	3.7	114	3.5
경북	33	2.3	80	4.3	113	3.4
전북	38	2.7	54	2.9	92	2.8
울산	20	1.4	56	3.0	76	2.3
전남	18	1.3	57	3.0	75	2.3
강원	14	1.0	59	3.1	73	2.2
충북	24	1.7	44	2.3	68	2.1
제주	19	1.3	21	1.1	40	1.2
외국	3	0.2	21	1.1	24	0.7
합계	1,414	100.0	2,124	100.0	3,290	100.0

### “간통만으론 교사 해임 너무 가혹” 광주지법 판결

동료 여교사와 간통한 교사를 해임까지 시킨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최근 초등 교사 김모(39)씨가 광주시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안력에 의한 성관계와 금품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는데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이것까지 포함해 김씨를 징계했으니, 사실상 징계사유 가운데 간통만 인정된다”며 “이런 비위 행위만으로 교사 신분을 상실하게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간통한 여교사의 경우 10년 넘게 성실하게 교사로 근무한 점 등에 비추면 해임 처분은 너무 무겁고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법교육청은 지난 2월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동료 여교사와 5차례 간통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금품도 요구했다며 김씨를 해임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하나 둘 하나 둘

원만한 가을날씨를 보인 21일 조선대 부속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조대부고 총동문회 체육대회 참석자들이 단체 줄넘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하마터면 또...

### 성삼재서 승합차 전복 장애청소년 등 6명 다쳐

광주YMCA 소속 발달장애청소년들이 탄 승합차량이 지리산 성삼재 인근에서 전복돼 6명이 다쳤다.

21일 오후 2시50분경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 하행선 내리막길에서 이모(28)씨가 운전하던 프라지오 승합차가 전복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씨가 중상을 입었고, 함께 타고 있던 지

적장애청소년 나모(16)군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차량에는 운전자 이씨와 인솔 교사 3명, 발달장애청소년 7명, 대학생 자원봉사자 1명 등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승합차가 내리막길을 내려

오다가 커브길에서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전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드레일 부근에 걸리면서 추락하지 않아 큰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07년 지리산에서는 체협학생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학생을 태운 관광 버스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학생 5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통부취재본부=이진택기자 ik5826@

## “中선원 사인, 고무탄 충격 심장 파열”

### 국과수 부검 결과

불법조업 중 해양경찰이 쏜 고무탄을 맞고 숨진 중국 선원 장수원(44·張樹文)씨가 고무탄을 맞은 충격으로 심장이 파열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거리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장씨의 사인은 고무탄 충격에 따른 심장 파열로 추정된다”라는 내용의 1차 소견 결과를 발표했다.

장씨는 가슴 중앙 왼쪽 아래에 고무탄을 맞고 왼쪽 갈비뼈가 일부 부러진 상태였으며, 심장 꼭짓점 부분인 심첨부(心尖部)에 2mm가량의 작은

파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러진 갈비뼈가 심장을 찌르는 것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영식 국과수 법의학부장은 “심장이 파열되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심낭(心囊)으로 피가 쏟아진다”며 “심낭 안에 피가 상당량 고인 점으로 미뤄 심장 파열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씨가 구타 등 다른 충격이나 두개골 손상, 지병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약물, 마약, 알코올 농도, 유전자 검사 등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해경, 흥기 휘두른 中선원 11명 구속

목포해양경찰은 21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에게 흥기를 들고 저항해 해경을 다치게 한 중국 어선 선장 장모(38)씨 등 10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신천항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또 EEZ에서 불법으로 조업을 한 또 다른 중국 어선 선장 우모(44)씨에 대해서도 주권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해경은 당초 장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구속된 11명 가운데 선장 장씨 등 10명은 숨진 선원이 탄 요단어 23827호(본선)에 있던 선원들이며 우씨는 요단어 23828호(부산) 선장이다. 구속 선원들은 지난 16일 신안군 흑산면 흥도 북서쪽 90km 해상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하다 적발되자 톱 등을 들고 저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나원침 (8672) 김종두



## 투자 미끼 거액 가로챈 인터넷 기자 구속

광주광안경찰은 21일 산양삼 재배에 투자하면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모(43)씨를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4월부터 광주시 광산구와 나주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00만원을 투자하면 보조금 1억 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모집, 10여명으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 휴가 군인 여성피어 술먹인후 성폭행

○~휴가나온 사병이 길가던 여성을 피어 성폭행을 저질렀다. 헌병대에 인계.

○~2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휴가중이던 김모(21) 사병이 지난 17일 밤 10시에 광주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든 A(19)양을 성폭행 한 혐의.

○~김삼병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A양에게 마음에 든다며 접근,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A양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여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특수가발 발매!!!**

**50만원~**

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大山프리모가발

**태양광발전 주택보급** **희소식**

농협 1년거치 5년 상환 자가부담 전액응답

한번의 선택으로 30년간 전기요금 걱정을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국내산 인증품 모듈로 시공해 드리며 검수는 한전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주택

- 누진세 때문에 걱정되는 주택
- 신축중이거나 신축예정된 주택은 물량부족, 미리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 관리공단 수요공급부족으로 신청을 했는데 태양광 설치를 못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시공가능

- 2013년부터는 태양광전문기업에서 자체사업추진 예정이며 보조대신 용자사업으로 대체예정임
- 사용하고 남은 전기는 다음달로 저축해서 (여름이나 겨울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용 사용량별 전력요금표  
2012년 8월 6일 전기요금 개정은

사용량(kwh)	요금(원)
100	7,010
200	21,230
300	42,370
400	75,270
500	124,340
600	207,470
700	284,480
800	361,490
1000	515,510

상문의 (주)셈 에너지 광주지점

광주 전남 동북부지역 062-528-3070 019-655-5678

전남 남서부지역 061-727-2371 019-624-2371